′20년 3차 스마트도시위원회 회의록

2020. 12.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2020년 제3차「스마트도시위원회」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20. 12. 23.(수) 16:00~18:30

◆ 방　　식 : 영상회의

◆ 참석위원 : 19명

- 강영옥 위원, 공정식 위원, 권순범 위원, 김규호 위원, 김승주 위원, 김태진 위원, 김태형 위원, 노석준 위원, 문현준 위원, 신희철 위원, 오영현 위원, 이경순 위원, 이재용 위원, 이정훈 위원, 이지은 위원, 인호 위원, 임규건 위원, 조영임 위원,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

※ 배석 : 스마트도시담당관, 빅데이터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장, 디지털재단 기획실장, 사업추진업체, 안건관련 팀장·주무관 등 26명

◆ 진행순서

-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중간보고
- 스마트도시정책관 주요사업 추진경과 공유

◆ 상정안건

- 토론(자문) 2건
  - ▸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방안
  - ▸ 스마트도시정책관 주요사업 추진방향

◆ 회의결과 : 붙임 참조

▢ 위원 발언 내용

〈간사〉

○ 진행순서, 참석위원 등 소개

〈스마트도시정책관〉

○ 참석위원 환영 인사말씀,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 위원장 : 임규건 위원
- 부위원장 : 이재용위원

〈위원장〉

○ 회의록 서명위원(김태형, 노석준 위원) 선출

○ 안건 2건 일괄 보고 후 토론 진행토록 하겠음

〈사업추진업체 PM〉

○ 안건1 :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중간보고

〈스마트도시담당관〉

○ 안건2 : 스마트도시정책관 주요사업 추진경과 공유

〈위원장〉

○ 안건1,2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람

○ 영상회의 시스템 문제로 발언이 어려운 위원님께서도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부탁드림

〈OOO 위원〉

○ 데이터에 대한 표준(프로토콜) 마련이 필요함.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게 되면 간과되는 부분이므로 신경을 써주었으면 함.

○ 서울시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체감을 못하는 부분이 존재함.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홍보가 되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시민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음. 각각의 기술들이 100% 다 연계 될 필요는 없지만 서울시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다른 기술들과 연계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력이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다소 필요해 보임.

○ 처음 사업을 추진할 때, 목표를 수립하고 순차적으로 세부내용을 수립하고 해나가지만 사업들이 범용성을 가지고 최대한 검증, 평가를 거쳐서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려면 추진실적 외에 추진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시스템 구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 5개년 계획이 잘되면 좋지만, 좋지 않게 흘러갈 경우 이러한 것이 고착화되지 않기 위해 기술의 발전, 행정적 제재 등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길 바람.

○ S-Map의 경우, 현재 시설 쪽에서도 공간정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디지털 트윈 등의 공간정보가 다른 서울시 내의 다른 사업부서의 데이터와 더 연계될 필요가 있음. 자문을 하다보면 각각의 부서의 데이터, 플랫폼 등에 차이가 있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서울시 내 데이터가 충분히 연계되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음

〈OOO 위원〉

○ 많은 내용 중 클라우드에 대해 7S가 될 수도 있다 말씀해주셨는데, 이미 많은 기업에서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작은 회사일수록 클라우드 베이스로 접근하고 있으며, 국내의 클라우드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확

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빠르게 추진하여 '7S가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클라우드를 포함하여 그림을 그려주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음

〈OOO 위원〉

- 기본계획 발표자료와 관련하여 AI플랫폼, 공간정보 플랫폼 등 여러 가지 플랫폼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으나, 한 플랫폼 안에 모든 데이터가 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공간정보, AI 등 특성이 모두 상이함
- 현재 보고서는 부서별 플랫폼 형태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어떤 형태로 설명될지는 몰라도 각각의 플랫폼들이 연계되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필요
- 예를 들어, 공간정보에서 수집되는 다양한 정보들이 AI플랫폼에서만 분석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플랫폼과 연계되어 분석 및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현재는 각 플랫폼 별 역할이 분산된 것 같아 어떻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지 보여주어야 함
- 기존 플랫폼(6S)이 클라우드 사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내용 보완이 필요해보임.
- 시민, 민간, 공공영역에서 서울시가 어떻게 할 수 잇는지에 대해 설명해주었으나, 서울이 어떤 도시로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문사회적 배경 및 변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스마트시티의 개념이 도출되어야 함. 인구학적 변화, 인문사회학적 변화,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변화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내용이 다소 부족해보임.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기는 하나, 요즘 1인가구의 증가로 안전에 대한 중요도가 나타나는데, 그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모습이 강조되었으면 함.
- 데이터 거래소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IoT 데이터 등의 많은 데이터를 공개하고 'GitHub'에도 올리는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로 밖에

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입장, 민간에서 사용하는 입장에서 시너지가 측면을 고려하면 서울시가 민간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를 연결하여 서비스를 발굴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발생할 것 같음

○ 본 계획이 두꺼운 책자로만 남지 않고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전반적인 성과점검 필요함. 5년간의 방향성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별 달성도를 체크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함

〈OOO 위원〉

○ 체험에서 체감으로 가는 내용이 메인이라고 생각하며, '어디나지원단' 같은 경우도 소셜 러닝 및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이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현재는 설치대수 등이 주요 KPI로 설정되어 있으나 데이터 경제로 가게 되면 운영, 품질(가동률, 와이파이 사용률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KPI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된다'가 '더 잘된다', '맞춤'은 '딱 맞는다'는 내용으로 설정되어야 함. 공공 와이파이가 현재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가동률, 와이파이 사용률 등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검토해 본다면 훨씬 더 체감이 잘 될 것 같음.

○ 북촌 IoT서비스 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기업들에게 구매실적 및 레퍼런스를 제공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함. 그럴 때 마다 영어자료가 굉장히 절실하다고 느꼈음.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외국어(영어)버전도 제작하고 유튜브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확산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디지털 격차와 관련하여 '스마트폰 따라하기 매뉴얼'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콘텐츠를 제작하여 다각화 필요

○ 북촌 IoT서비스를 처음 봤을 때는 '이게 IoT가 맞아?'할 정도로 미흡했는데 지금 많은 변화를 보여줌. 그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는 현재 시작단계라고 생각됨. 빅데이터 경진대회 등과 같이 활용에 대한 노하우가 쌓였으니 이를 활용

하여 의미있는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함. 스타트업과의 협업이나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교류를 통해 현금 지원사업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OOO 위원〉

○ 현재 각 지자체에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과 정보화 기본계획의 분리 발주를 고민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이라는 명칭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 것 같음

○ 체험, 체감 등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발표해주셨고, 전략부분에도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어떠한 방법론을 통하여 전략방안과 서비스를 도출하였는지 설명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음.

○ 타 지자체의 중간보고나 완료보고에 가게 되면 힘들게 수립된 계획들이 캐비넷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음. 아마 모호성 때문이라 생각됨. 여기서 말하는 모호성은 시민들에게 공감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함.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써서 수립되면 좋겠음. 과거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정책 브랜드'를 만든 적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참고하여 사용하면 시민들의 체감도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음

〈OOO 위원〉

○ 과거 사이버보안 관련 정책은 '지킨다'의 의미였는데, 현재는 활용을 염두에 두고 지키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음. 우리나라 사이버보안 정책과 다른 나라의 사이버보안 정책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 국내 사이버보안 관련 정책은 전 산상으로 문서의 등급이 나누어져 있지 않음. 기껏해야 의료정보, 금융정보 등으로 분류됨. 외국은 의료정보도 1,2,3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음. 이렇게 데이터에 등급이 책정되어야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음. 외국에서는 Define&Design Approach라고 이야기함. 우리나라는 등급 분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중요도 정의가 안 되어 제대로 된 대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시민단체와 이야기할 때 항상 평행선을 긋는 이유가 시민단체는 항상 중요하

다고 이야기하고 기업체는 쓸 수 있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음. 보안과 데이터 활용을 동시에 취하려면 데이터 분류기준을 수립해야 함. 아마존 데이터만 봐도 데이터 등급에 따라 사용하는 클라우드가 다 다름. 데이터 분류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함.

○ 내부적으로 사이버보안 관련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도 시 차원에서 시민들의 정보를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있음을 전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해외의 경우, 시 단위로 위험관리보고서(Risk Management Annual Report)를 매년 발간하고 있음. 우리 시에서는 어떤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 정보들의 중요도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보안 되고 있으며 담당자는 누구다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음. 정부도 현재 검토 중으로 알고 있음. 위험관리보고서를 벤치마킹하여 국민들에게 고지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공공와이파이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하여 보급되는 것은 좋으나, 해커들이 공공와이파이를 통해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추적이 어려움. 공공와이파이를 통한 공격 발생 시 대응책과 이와 같은 오용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OOO 위원〉

○ 에스토니아 사례가 제시되어 있는데, 데이터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한 것 같음

○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도시 순위 면에서 에스토니아와 비슷하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인구수, GDP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있어서 에스토니아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기대효과 부분에서 시민, 기업, 도시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 맞긴 하나 스마트도시에서 추구해야하는 목적 중 '행정'과 관련하여 비용 절감, 행정의 효율화 등도 중요한 성과지표이나 이 부분이 부족함. 현재 행정을 전면에 내세우기는

조심스러워 '도시'와 관련된 부분에서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전반적으로 투자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도시보다도 행정적으로 어떻게 수익이 돌아오고, 어떤 효과를 유발하는지, 삶의 질이 어떻게 나아지는지 등도 중요한 성과이기 때문에 순환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조금 더 과감하게 제시해도 좋을 것 같음

〈OOO 위원〉

○ 서울시는 스마트도시와 관련하여 많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민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여론의 지지를 받는 것이 필요함. 추진 내용 모두는 어렵겠지만 주요 사업들은 목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1차년도 목표, 3차년도 목표 등 연차별로 세분화하여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음. 앞으로 5개년 동안 본 계획에 따라 담당 공무원분들도 사업을 추진 하실테니, 좀 더 구체적인 잣대를 가지고 내용을 채워주길 바람

〈OOO 위원〉

○ 6S를 잘 정리해주셨는데 하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음. 포용적 금융을 위해 S-Fintech가 있었으면 함. 스마트시티를 잘 운영하려면 결제와 관련된 포용적 금융이 하나의 큰 꼭지로 있었으면 함

○ 현재 복지분야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고,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그를 관리하기 위해 행정적인 비용도 많이 들고 있음. 이에 따라 복지지원의 디지털화가 필요해 보임. 시민들의 편리한 결제와 포인트 같은 보상부분의 디지털화가 필요하고, 해외의 Food Stamp, 긴급지원 서비스 등 복지지원 할 수 있는 부분을 디지털화 했으면 하고, 온누리 상품권도 디지털상품권으로 해서 오남용을 막고 카드깡, 상품권깡을 막아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함

○ 재난지원금도 현재와 같은 방식은 high-level 데이터는 얻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정보를 얻기는 힘듦. 재난지원금도 디지털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데이

터를 수집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추가 지급을 하거나 유통처를 동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등 동적인 부분(언제, 어디서 뭘 위해 썼는지, 유통속도는 어떤지)을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머니로 나눠주는 방향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음.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 시켜주는 디지털 바우처 사업도 서울시 차원에서 고민했으면 함.
- 두번째로, 데이터가 굉장히 방대하고 개인정보는 민감한 부분임. 잘못하면 빅브라더와 같은 사태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에 대한 주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블록체인이 많이 쓰임. 예를 들어 어떤 데이터를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활용 했는지, 언제 폐기처분 했는지 등 모든 이력에 관해서 블록체인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나의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한 메커니즘 또는 플랫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세 번째로 공공와이파이를 외국인에게 오픈해서 데이터를 얻고 관광계획이나 마케팅자료로 쓰면 좋지 않을까 싶음. 이러면 상점이나 매출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OOO 위원〉

-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들을 많이 제시하였는데, 민간기업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 되고 있음으로, 공공데이터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벤치마킹 하면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잘 결합하는 좋은 사례가 만들어 질 것 같음
- 3D맵을 통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으며, 3D맵을 활용해서 서울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활용범위를 확장해야 함. 대중교통과의 연계, 안전 인프라 확인 등 3D맵을 향후에도 보다 더 다양하게 활용하고 확장 시키면 좋겠음

○ IoT와 관련하여 민간기업이 다양하게 테스트하고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특정 구역을 섹터로 설정하여 'IoT 규제 프리 지역'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음. 그곳에서 IoT를 가지고 공공이나 민간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면 많은 민간기업들이 IoT를 가지고 취약계층 지원, 스마트 가로등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례들을 테스트하고, 이에 대한 기록이 남다 보면 거기에서 서울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발굴될 것 같음

○ 로봇 활용과 관련하여 해외사례를 보면, AI음성이 되는 로봇이 시장에 많이 나오면서 취약계층과 관련하여 로봇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날씨를 확인하고, 택시 호출, 건강상태 확인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사례들이 생기고 있어 취약계층과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로봇을 도입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음

〈OOO 위원〉

○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정보격차가 'Job'격차로 이어지고 있어, 이번 기본계획이 Job Creation, 즉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기여를 했으면 좋겠음.

○ 시와 민간의 역할분담이 명확하였으면 하며, 시가 민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으면 함

○ 교통전문가로서 교통에 대한 내용이 부족해서 다소 아쉬움이 있음. 교통 관련 사업이 많이 포함되었으면 함

○ 결국,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업무들이 다양하지만 주요 업무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생각함. 사업 하나하나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큰 방향에서 디지털 전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함.

○ S-Net사업은 국토부의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과 연계가 되고, 이 외에도 중앙정부의 사업이 많으므로 중앙정부 사업과의 연계성도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임. 특히, S-Net사업은 민간과 협업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어떤 것부터 우선적으로 협업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보임.

〈OOO 위원〉

- 기본계획에서 핵심가치와 철학은 미완성인 것으로 보임. 까치온 등 세계시장에 내 놓을 것 많은데 이러한 부분이 조금 더 포장이 잘되어야 할 것 같음
- 서울시가 5년 후에 추구하고자 하는 핵심가치가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표출되었으면 함
- KPI는 정말 필요한 것 같음. 도시가 뭘 달성 할려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추진과제와 연결이 안되서 과제 자체가 묻히게 됨. 목표설정과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지, 예를 들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 자원순환을 자체적으로 40%까지 하겠다 라고 하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려는지 나타낼 수 있는 슬로건이 있어야 할 것 같음
- 서울시 특성 중 외국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이 시민참여 부분임. 이런 부분들이 교육 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스마트 시티즌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려하는 안 들이 나왔으면 함

〈OOO 위원〉

- 큰 틀에서 본다면 비전이나 전략 같은 것은 역사성, 미래지향성, 명료성 등이 강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역사성이라고 하면 5차 기본계획에서 이번에 6차 기본계획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기존 5차 기본계획에서의 장점은 연계를 가지고 나가야 함
- 비전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머릿속으로 그려지는지에 대한 것들이 명료하게 그려져야 함
- 이러한 관점에서 비전을 설정할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역사성, 미래지향적, 명료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함
- 전략이나 과제들이 실행력을 갖추려면 현황들과 잘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현황들이 적절하게 분석이 되어 정책들과 연계가 잘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음

○ 예를 들어, 앞에서 제시한 에스토니아 사례의 경우 PC사용률이 높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PC보다는 스마트폰의 사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점에서 적절한 사례인가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또 한가지 비전과 전략, 전략과제들은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이 정확하게 보여야 하는 것이 중요함. 어떠한 자원을 가지고 어떠한 절차와 환류체계를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또한 그 결과 어떠한 아웃풋이 도출될 것인지가 정확하게 보여야 하며, 정책의 명료성 측면에서 중요함

○ '까치온'이 의미 있게 되려면 도심지역이나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공원이나 이런 것들도 확장되어야 의미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됨

○ 정책의 긴급성, 비용의 효과성 같은 것들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함

〈OOO 위원〉

○ 그동안 서울시가 '정보화 기본계획'은 많이 수립하였지만 '스마트시티 및 정보화 기본계획'이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음. 그러다보니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했고 또 그러면서 스마트시티정책관 이외 하는 일은 실제로 기본계획에 담지 않은 것 같음.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일부 빠진 부분들이 있지만, 기본계획은 'Action Plan'이다 보니 실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판단됨

○ 다만 도시기본계획처럼 사회 전반의 흐름, 서울시의 역사라던지, 그동안의 변화과정을 담는 것에서 6S를 중심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 같으며, 이러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그동안 잘해왔다고 생각함

○ 정보화 격차가 'Job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과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 등은 최종보고를 만들어가면서 충분히 보완하면서 잘 해 나

갈 수 있다고 생각됨

○ 다만 5개년 계획은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 등 세부계획을 고려하면서 스마트하게 잘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음

〈OOO 위원〉

○ 전체적인 큰 그림. 즉 시민, 기업, 도시로 구분하고 전략을 만든 부분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시민 측면, 기업 측면, 도시 측면에서 기대효과를 나타낸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함

○ 다만 추진과제는 아직 고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음. 일단 기본계획인데 서비스 구축 관련 부분이 많은 것 같음

○ 디지털 격차 해소를 한다는 방향은 좋으나 관련 실체적인 사업들 자체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함

○ 추진과제 일부의 경우 시민, 기업 카테고리에 안 들어가야 할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 조정이 필요해 보임

○ 추진과제 중 서울에 특화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 남은 시간 동안 집중해서 봐줬으면 함

〈OOO 위원〉

○ 추진과제 중 가명처리를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명처리를 하려면 가명처리 하려는 부서와 현업부서 간 역할분담이 잘 되어야 함. 개인정보 관련된 법률 준수 등의 부분을 잘 챙겼으면 함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

○ 오늘 좋은 말씀들, 제안들 받았고, 다 못주신 의견들은 서면으로 향후 받아서 이를 통해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직원들과 같이 보완해 나가겠음

○ 현재 각 과에 과장님들과 디지털재단에서도 참여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지

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향후에는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더라도 그룹별이든지 개별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음

○ 개별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렸던 부분들은 담당과별로 별도로 전화통화 등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 기본계획 전체에 대해서는 최종 마무리해서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전체 위원회에서 스크린할 수 있도록 자문받도록 하겠음

〈위원장〉

○ 이상으로 제3차 정기회의를 종료하겠음.